



겨우내내 노동자들을 더욱 좁게 만들었던 걸프전의 포성이 마침내 멎었다. 그리고 저자거리에서 나와있는 방이며, 달래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봄은 영남 다른 곳에서부터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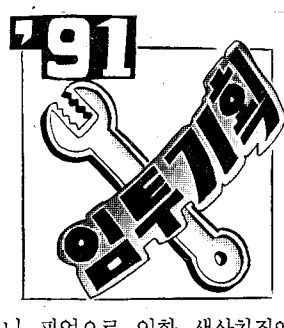
매년 3~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임금인상 교섭'이 그것이다. 기록에서 읽어나가면 울라 살기가 어려워진 판에 일년내내 월급봉투의 두께를 좌우할 임금인상폭의 높고 낮음에 대한 관심은 분명 계절의 변화를 잊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걸프전의 종전과 함께 저달라·저금리·저유가의 '신3제' 시대가 도래한다는 등 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온통 장미빛으로 도배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급변하는 봄은 더더욱 멀게 느껴진다. 더불어 작년 말부터 노경권이 잇달아 내놓은 '법외와의 전쟁' '임금인상 한자리수 억제정책' '연대회의 노조 지도자 7명 구속' 등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강경 대처방향이 그것이다.

이렇듯 일천만 노동자들에게 87년 7, 8월의 위대했던 투쟁은 6.25이래 40여년동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예측과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90년 1월22일 전노협의 결성은 최대의 조직적 성과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87년의 사상을 해는 '정치적위기를 노려

# 노동탄압 부른 '자본축적' 위기



## <1>임투를 둘러싼 경제적 배경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이 일파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자 신들의 불순한 제국적 의도에 의해 다소 과도하게 포장되었다고는 하나 저들이 내세우는 '체제 위기'는 거짓이 아니다. 이것이 탄

업의 폐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이 따르게 마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도 중심으로 행해지는 설비자동화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으로써 있을 수 밖에 없는 반발을 사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세번째로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당선이라는 합법(?)을

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91년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는 정권과 자본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한 수 밖에 없다.

따라서 91년 임투과정에서 정권과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 통제정책의 강화의 진정한 이유는 이상의 세가지이다.

91년에서 93년에 이르는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권력재편기'라고 표현한다. 대립하는 양 세력 모두가 있어 이 기간동안의 승패는 향후 수년의 역관계를 좌우할 것이다.

이 병 학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자군 창출될듯 노동집약적 산업 '96년 이전 사양화추세

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남한 자본주의가 처한 축적구조상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노동통제정책의 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습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는 86~88년 사이에 모든 면에서 이전시기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3저화(저임금, 저이자, 저환율)에 힘입은 것이지만 그 원동력은 전후 40년동안 노동자계급에 대한 부제한적 착취를 통한 순조로운 자본축적에 있었다.

이렇듯 눈덩이처럼 커진 남한 자본의 축적폭은 더이상 과거의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의 경공업, 전기, 전자 조립산업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정권과 자본가들이 산업구조의 중공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재편을 도모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 자본의 의도가 온전히 관철되는 방향

으로만 이루어지는 않는다. 그 첫번째 이유가 노동자 계급의 성장에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이다. 그러나 위기는 외부로부터 도래했다.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 남한 자본주의의 성장은 또 다른 경쟁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코 달가운 것일 수 없다. 기술이전의 쇠퇴, 우주 파이러온트들을 통한 개방압력의 가속도를 통하여 이들은 남한 자본주의의 성장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저지하고, 미, EC 등이 주

도의 국제분업체제로부터 한 치도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남한 노동자의 50% 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무기로 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경쟁업 상품에 대한 추격은 남한 자본으로서도 여윌듯 좌시할 수 없는 것이기 도 하다. 현재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의 종속성을 자기존립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는 국제분업체제에의 안정적 재편을 통한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은 단시일내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권과 독점자본은 이를 96년까지 완수할 잠정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안정적인 재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도 역시 강력한 힘을 갖춘 노동자계급의 존재이다. 섬유, 봉제, 의류, 신발 등 한계산업 내지는 사양산

업의 폐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이 따르게 마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도 중심으로 행해지는 설비자동화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으로써 있을 수 밖에 없는 반발을 사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세번째로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당선이라는 합법(?)을

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91년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는 정권과 자본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한 수 밖에 없다.

따라서 91년 임투과정에서 정권과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 통제정책의 강화의 진정한 이유는 이상의 세가지이다.

91년에서 93년에 이르는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권력재편기'라고 표현한다. 대립하는 양 세력 모두가 있어 이 기간동안의 승패는 향후 수년의 역관계를 좌우할 것이다.

## 朔風

지자제를 둘러싸고 기존 정치권의 수면 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자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는 매우 다르게 이러한 각 정파의 전략에 따른 움직임들은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인 이익을 철저히 해 외면하고 있다는 점과 차가, 즉 7공화국에 대한 전략 혹은 음모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부활의 초입기에 들어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30년만에 부활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한국의 지자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자제에 얽혀 있는 기존 정치권의 각 정파들이 노리는 전략 혹은 음모는 무엇인가? 권위체제에 피흘려 대항한 민중의 성과물임에 분명 한 지자제는 과연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량'에 만족했던 87년 6월의 민중여랑을 비롯하여 기존 정치권의 전략 혹은 음모의 결전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지자제에 얽혀있는 기존 정치권의 전략은 크게 보아 두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정가에 유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자제를 계기로 하여 내각제의 부활을 꿈꾸는 민주당 내의 '내각제추진그룹(민정계-주로 TK세력-과 공화계)'과 상대적으로 직선제에 의한 대권획득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평민당과 민자당의 민주계 그룹'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공화계의 경우 소수파라는 당내 입지

와 필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국민 지지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민정계는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내각제를 추진해 왔으며 '미필적 고의성'이 짙은 내각제 합의자의 유출로 당이 깨지기 일보직전까지의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각제는 포기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민정공화계는 틈만 있으면 내각제개헌을 추진한다는 기본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결과와 내각제개헌에 쫓겨나 이른바 'YS가세작전'이 현재까지 얼마나 성공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체없이 내각제 개헌을 강력하게 추

진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자제에 얽힌 또 하나의 주도는 여전히 대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평민당과 민자당내 민주계의 몫으로 설명되고 있다. 양김씨의 대권도전 야망은 93년 초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에 대응하는 이들의 동태는 자못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제의 역사적인 부활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90년대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체제를 재강화시켜줄 뿐인 부분적 개량을 또다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전략 혹은 음모를 분쇄하여 진정한 민중의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있다고 하겠다. (남남)

## "지자제 또다시 개량화 될수 없다"

## 활동에 비해 재정상태 열악 재학생과 동문의 매개되야

“현재 총동창회는 매년 4~5차례 동창회보만 '경회회보'를 발간하여 교내·외의 동문과 동문회의 활동, 학교의 발전상과 소식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동문들간의 친교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경회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작년 12월21일에도 롯데호텔에서 총창과 교직원, 동문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추진과 만찬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매년 동창회의 임원수집을 만 들고 있으며 졸업생 전체의 명단과 주소, 연락처가 있는 동문주소록도 올해 새로이 만들 계획입니다"라며 정사무장은 총동창회

에 이르는 예산규모를 충당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현재상태 계속된다면 앞으로 동창회활동의 발전을 바라기는 무리일 것임이다"라며 현재의 회장단찬조금, 이사회비와 경회회비, 재학생회비비 등 이외에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자 하고, 봄, 가을로 있는 축제때에도 지원금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 80년 전통의 종로서적은 책 찾기가 편리합니다

신학기 대학 교재 완전 구비

1층  
예매권·잡지  
공연안배, 국내외 정기 간행물

2층  
기독교  
성경, 신학, 신앙, 교양, 묵회, 설교, 찬송가

3층  
사회관·학생관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메스컴, 세법, 종교교재, 어린이

4층  
인문관·문구·레코드·방송대 교재  
문학, 종교, 역사, 철학, 사회, 교육, 심리, 문구, 레코드, 오디오 부품, 팬시용품

5층  
자연관·컴퓨터·사무자동학기  
농업, 공업, 가정, 의학, 전기, 전자, 토목, 금속, 기계, 이공계 외국 원서, 컴퓨터, 사무자동학기

6층  
문예관·외국서적관  
시, 소설, 수필,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체육, 외국 원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110-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4-9  
전화/733-2331 (매장) / 732-2331 (사무실)

## 힘\*찬\*출\*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아침  
21세기의 주인이 되는  
찬란한 이 아침에  
경회인의 눈망울을 지키며  
질실로 경회를 사랑하는가?  
세일콘택트렌즈안경원  
벽을 허물고 사랑의 가슴으로  
함께 나갑시다.

### 세일콘택트렌즈안경원

(학생휴게실)

후원 : 학생복지위원회

지금 우리앞에 놓여진 정보사회의  
기업의 생존은 "제5의 경영자원"인 "기업문화"의  
창조여부에 달려있다.

## 정보사회의 기업문화

각 기업에서  
注文 해도!!

### 정보사회의 기업문화

■ 집 필

- 이이영 (문화부장관, 집필대표)
- 김상태 (이화여대 교수)
- 김종민 (재미언론인)
- 김학수 (서강대 교수)
- 조영호 (아주대 교수)

이 한편의 책속에  
「기업의 死活」을 좌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업문화란 무엇인가/어에서 이 시기에 기업문화인가/  
후기산업사회의 통신환경/기업문화의 방향/  
벽을 허물러는 세 문명의 전달자/외세거본 한국인과 기업/  
새시대에 돋보일 우리의 기술원형/후기산업사회의 조직/  
정보사회의 문을 여는 기술혁신/  
미국산업의 사상과 일본산업의 변혁이 주는 교훈/  
정보와 통신이 합쳐는 인포뮤니케이션/  
전통속에서 미래를 찾는 한국인/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눈길/

구입문의 : 구내서점  
961-0167

A3판 344면/값 3,500원  
전국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한국전기통신공사출판부